

커뮤니케이션 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의 결속도 연구

— 제주시 아동을 대상으로 —

김 효 심*

<목 차>

- | | |
|----------------|--------------------------------------|
| 1. 서 론 | 4. 연구결과 |
| 1) 문제의 제기 | 1)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와
의 커뮤니케이션 실태 |
|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 2) 아동과 부모간의 결속도 |
| 3) 연구의 제한점 | 3) 커뮤니케이션 관련변인에
따른 부모와의 결속도
차이 |
| 2. 선행연구 고찰 | 5. 결론 및 제언 |
| 3.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1) 조사대상 | |
| 2) 조사도구 | |
| 3) 절차 및 방법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general trends of the communication types between children and their parent and to analyze communication variables which influence on their cohesion. Subjects were 294 children of 5th and 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s in the city of Cheju and they were surveyed with a questionnai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 Children needed more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especially with their fathers. The children's perception of the cohesion with their paren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communication variables such as communication time per a day, perception of communication time, communication patterns, and satisfaction of overall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 The most important thing to increase family cohesion is the efforts of family members themselves and educational programs improving the family communication.

* 제주교육대학교 실과교육과 조교수

1. 서 론

1) 문제의 제기

현대사회의 큰 특징중의 하나는 과거에 비하여 가정의 기능이 축소되고 가족내의 결속이 약화된 점이다. 그 과정에 가족간에 유발되는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된다고 하는 점에서 기능적인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작용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복잡하고 변화많은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기능강화 및 건강성 회복이 일차적이며(최규련, 1996)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를 통한 부모자녀간의 긴밀한 유대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청소년기를 앞두고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은 신체, 인지, 정서 발달에 있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자 상급학교에로의 진학, 그리고 학업과 가족내의 관계, 가정과 사회에서 기대되는 역할 등 여러 가지로 발달과업상 중요한 시기에 있다. 청소년기로 진입할수록 자녀는 점차 부모와의 대화를 더 적게 하고 또래집단, 학교, 대중매체 등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력이 증대된다. 또 부모로부터의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면서 부모의 권위에 단순히 따르지만은 않게 되며 따라서 통제하고자 하는 부모와 그에 대응하는 자녀의 반응은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가족 내외적으로 잘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

부모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 작용이며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특히 가족관계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고 상호 관계확립 및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며 자녀의 사회화 및 가족간의 갈등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장명옥, 1981).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따라 아동과 부모간의 관계의 질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가족은 자녀의 성장, 발달의 중요한 바탕이고 일차적인 환경으로서 가치관 형성을 포함, 사회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최규련, 1996). 부모 자녀관계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청소년기에 진입하기 이전 준비적 과정으로서 가족간의 유대를 더욱 견고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이 겪는 세대간의 물이해와 갈등, 나아가 사회적으로 그 심각함이 날로 더해가는 10대 청소년 문제 및 가족문제 등을 해결하고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기 이전

의 아동기 가족을 대상으로 기능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모색, 가족내적인 대안을 구축함은 건강한 가정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매우 의의있는 일로 사료된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실태와 유형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커뮤니케이션 관련변인이 부모와의 결속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부모자녀간의 결속 향상과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에 도움을 주는 기능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관련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에 따라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아동이 지각한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실태는 어떠한가?
- (2)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결속 정도는 어떠한가?
- (3) 커뮤니케이션 관련변인이 부모와의 결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부모와 자녀간의 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을 제주 시내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중인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모든 아동집단에 일반화하기는 무리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를 통하여 조사 척도 및 표집방법을 보완하고 다른 지역과의 비교연구 및 부모자녀 쌍방의 조사를 시도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선행연구 고찰

가족결속(family cohesion)이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라고 할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이 가족으로부터 심리·정서적으로 격리되거나 연합된 정도로 측정 가능하다(Olson et. al., 1983). 인간이 타인과 교섭함으로써 사회관계를 만들어가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 중 가장 기초적인 것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며 가족원의 결속을 유지·강화시키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장호선, 1987; Thomas, 1977).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과 부모자녀간의 결속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드물고 또한 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라고 할지라도 가족내의 발달상의 변화로 관심을 모으는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단연코 많아 상대적으로 아동기 자녀와 부모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잘 기능하는(well-functioning) 가족의 특징’을 명료화하는 작업을 한 Olson 등 (1979)은 가족치료이론을 포함한 가족관계 문헌을 폭넓게 고찰하여 ‘잘 기능하는 가족’을 나타내주는 50여개의 개념들에 관하여 종합분석한 결과, 이 개념들을 함축하는 것으로 가족의 응집과 적응, 커뮤니케이션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은 가족의 응집과 적응이 균형적으로 가족체계를 움직이게 하며 이를 유지시키는 것으로서 가족기능의 촉매작용을 한다(Olson et. al., 1983).

커뮤니케이션과 부모자녀간의 결속과의 관련성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또 자녀의 스트레스 및 부적응 등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한 연구, 그리고 부모자녀관계 및 자녀의 적응 및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취급되어온 부모의 양육태도나 언어적 통제유형,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등 관련 연구들을 통해서 이 둘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이 자녀와의 폐쇄적인 의사소통보다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해주고 있고, 대화 시간이 많고 대화 만족도가 높을 때 자녀의 부적응 수준을 낮추어 가족의 응집성과 기능성에 효과적이며, 또 자녀의 스트레스감소 및 적응에 바람직하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진희, 1988; 민하영, 1991; 백양희·최외선, 1996; 전귀연·최보가, 1993, 1995a, b; 차은정, 1996; 최연실, 1996).

가정에서의 양육태도, 훈육 등을 통한 아동의 사회화 과정은 언어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부모의 언어적 양육방식은 아동의 발달과 행동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경희, 1996). 부모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부모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 및 언어행동을 보일 경우 아동은 감정을 많이 억압받게 되며 이로 인하여 부정적인 자아의식 형성, 욕구불만, 갈등, 소외감, 반항 경향, 고독감 등 부정적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 등 대체로 부모와의 부적절한 상호작용과 아동의 부적응간에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케 해주는 결과들이 대부분이다(공인숙, 1989; 김리은·정옥분, 1996; 김진희, 1988; 박은주·김경신, 1995; 민하영, 1991; 백양희·최외선, 1996; 장호선, 1987; 전귀연·최보가, 1993, 1995a, b; 정원식, 1977; 차은정, 1996; 차재호, 1983; 최연실, 1996; Hollahan et. al., 1978).

이상을 통해 볼 때, 아동과 부모간에 이루어지는 언어적 상호작용, 즉 커뮤니케이

선은 아동의 현재와 미래의 제반 발달과정 및 행동특성을 예언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잠정적으로 부모 자녀간의 결속을 유지·강화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가 매우 중요하며 때문에 가족원의 적응과 긴밀한 결속을 위해서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으며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밝혀내는 것이 본 연구의 축이 될 것이다.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제주시내 6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아동후기의 자녀를 둔 가족에 유익한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아동은 남자 아동 154명, 여자 아동 140명이며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얻었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아동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사항을 묻는 문항 및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실태를 묻는 문항, 그리고 부모와의 결속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실태를 묻는 문항은 주대화 상대자 및 부모와의 하루평균 대화 시간, 대화 인지도, 대화 유형, 대화 만족도, 주요 주제별 대화정도 등을 묻고 있다.

부모와의 결속도 척도는 부모자녀간의 유대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아버지와의 결속도 10문항, 어머니와의 결속도 10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다. 이는 김순옥(1989)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만들었으며 예비조사를 통하여 문항수정 및 신뢰도 검사 후 사용하였다. 부모와의 결속도 척도의 신뢰도는 각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Chronbach's α 계수의 값이 부모쪽 각각 .83, .87로 비교적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아동관련	집 단	n (%)	부모관련	집 단	n (%)	
성 별	남	154 (52.4)	부모관련	35미만	27 (9.6)	
	녀	140 (47.6)		35~39	147 (52.1)	
형제수	외동이	29 (9.9)		40~44	91 (32.3)	
	2	159 (54.1)		45~49	11 (3.9)	
	3	76 (25.9)		50이상	6 (2.1)	
	4이상	30 (10.1)		國 졸	22 (7.7)	
출생순위	첫 째	145 (50.2)			母의 中 卒	70 (24.5)
	막 내	106 (36.7)			고 卒	173 (60.5)
	중 간	38 (13.1)		대학이상	21 (7.3)	
가족형태	핵가족	256 (88.0)		母의종교	유	233 (79.3)
	확대가족	36 (12.0)	무		61 (20.7)	
종교	유	227 (77.2)	어머니 職業유무	유	119 (41.5)	
	무	67 (22.8)		무	168 (58.5)	
생활수준	상	7 (2.4)	父의연령	35미만	7 (2.5)	
	중	233 (80.3)		35~39	76 (27.1)	
	하	50 (17.2)		40~44	149 (53.0)	
수입	100만원미만	34 (12.7)		45~49	35 (12.4)	
	100~150	135 (50.4)		50이상	14 (5.0)	
	150이상	99 (36.9)	父의 國 卒	10 (3.5)		
어머니 職業유무	유	119 (41.5)		父의 中 卒	40 (13.9)	
	무	168 (58.5)		고 卒	151 (52.6)	
어머니 職業유무	유	119 (41.5)	대학이상	86 (30.0)		
	무	168 (58.5)	父의종교	유	200 (68.3)	
				무	93 (31.7)	

3) 절차 및 방법

설문을 실시할 자료의 타당도와 신뢰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96년 11월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검증 및 문항수정후 같은 해 12월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본 연구자가 제주시내 초등학교중 지역별로 6개교를 방문하여 담임 교사의 도움을 얻어 설문을 실시하고 자료를 얻었으며 배포한 320부의 자료중 부실하거나 부모가 제시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294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는 SA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인 실태는 빈도와 백분율, 산술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부모자녀간의 결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케이션 관련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t 검증, 그리고 ANOVA 등을 이용하였다.

4. 연구결과

1)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실태

아동과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실태를 알아본 결과, 아동은 주 대화상대자로 친구를 들고 있으며 그 다음이 어머니, 그리고 친구와 부모님 모두 비슷하다는 아동, 그리고 아버지의 순이었다(표 3). 친구라고 답한 아동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점차 부모와의 대화를 더 적게 하고 친구와의 관계에 집중되어 가는 이 시기의 아동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3〉 아동의 주 대화상대자

주 대화상대자	빈도 (%)	주 대화상대자	빈도 (%)
어머니	75 (26.6)	친구	131 (46.4)
아버지	10 (3.6)	모두 비슷	66 (23.4)

커뮤니케이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와의 하루평균 대화시간, 대화 유형, 대화시간 인지도, 대화시간이 부족한 이유, 대화만족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부모와 하루평균 대화시간은 어머니의 경우 1시간 이상이 43.5%로 가장 많다. 그러나 30분 미만인 경우도 37.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에 비교할 때 30분 미만이 59.5%로서 많은 아동이 아버지와의 실제 대화시간이 적다.

〈표 4〉 커뮤니케이션 실태

변 인	집 단	어머니쪽 빈도(%)	아버지쪽 빈도(%)
하루평균 대화시간	30분미만	110(37.7)	175(59.5)
	30분~1시간	55(18.8)	55(18.7)
	1시간이상	127(43.5)	64(21.8)
대 화 인 지 도	충분히 하고 있다	88(30.0)	52(17.7)
	보통이다	160(54.6)	151(51.5)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45(15.4)	90(30.7)
대화시간 부족이유	함께있는 시간 부족	31(70.5)	72(80.9)
	서로 대화 통하지 않음	6(13.6)	9(10.1)
	대화하기 싫음	7(15.9)	8(9.0)
대화유형	양방개방형	172(58.9)	125(42.8)
	부모주도형	60(20.5)	98(33.6)
	자녀주도형	47(16.1)	39(13.3)
	양방차단형	13(4.5)	30(10.3)
대 화 만 족 도	낮은집단	19(6.5)	173(58.8)
	중간집단	71(24.3)	89(30.3)
	높은집단	202(69.2)	32(10.9)

실제로 대화한 시간에 관계없이 부모와 대화한 시간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대체로 보통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게 나타났다.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동은 부모 각각 17.7%, 30.0%로 그리 높지 않은 수치이며, 대화를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은 부모 각각 30.7%, 15.4%로서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아동이 많아 부모와의 대화를 열망하고 있음을 간

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화를 충분히 하지 못하다고 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함께있는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대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서로 대화를 하기 싫어하거나 대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아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대화 유형을 보면 부모자녀간에 상호 개방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가 어머니와 아버지쪽 모두 42.9%, 52.8%로 다른 유형보다는 높고 그 중에서도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이 더 많게 나타났는데 대체로 가장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 유형으로서 상호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들고 있음을 볼 때(박은주·김경신, 1995; 장호선, 1987) 어느 정도 다행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양육태도(김리은·정옥분, 1996)를 간접적으로 시사하여 주는 부모주도의 대화유형은 아버지쪽 33.6%, 어머니쪽 20.5%로서 여전히 많은 부모가 대화에 있어서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 자신이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언어적 통제 유형을 조사한 김리은과 정옥분(1996)의 연구 결과와도 맥이 통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체로 언어적인 통제행동에 있어 인성적 통제유형보다 지위지향적 통제유형이 많아 아동의 역할재량과 개인의 특성, 의도, 동기를 중요시 않는 언어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있어 이는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생각된다. 자녀가 주도하는 유형은 아버지와 어머니쪽 각각 16.1%, 13.3%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아동과 서로 대화가 차단되어 있는 경우는 부모 각각 4.5%, 10.3%로 매우 적었다. 하지만 이 역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서로 대화를 회피하거나 꺼리는 경우의 빈도가 높다.

부모와의 대화에 대한 만족도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69.2%의 아동이 매우 만족하고 단지 6.5%의 아동의 만족도가 낮는데 비해 아버지에 대해서는 역으로 58.8%의 아동이 매우 만족도가 낮고 10.9%의 아동만이 아버지와의 대화에 만족하고 있어 아버지와의 대화의 내용 및 질에 불만족스러움을 보여준다.

한편, 아동과 부모간의 대화내용을 8가지로 대별하여 각 주제별로 이야기 횟수를 중심으로 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와의 대화정도를 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를 볼 때 부모와 나누는 대화는 부모 모두 아동의 목표나 희망에 관해서가 가장 많고 아버지의 경우 학교성적과 공부에 대한 것이 어머니쪽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이 지각할 때 아버지와의

〈표 5〉 주제별 대화정도

대화주제	분 류	어머니쪽	아버지쪽
학교성적 공 부	자주한다	85 (28.9)	118 (40.1)
	중간이다	131 (44.6)	94 (32.0)
	적게한다	78 (26.5)	82 (27.9)
학교생활	자주한다	79 (26.9)	38 (12.9)
	중간이다	119 (40.5)	88 (29.9)
	적게한다	96 (32.7)	168 (57.1)
교우관계	자주한다	49 (16.7)	34 (11.6)
	중간이다	100 (34.0)	73 (24.8)
	적게한다	145 (49.3)	187 (63.6)
용돈사용	자주한다	37 (12.6)	53 (18.0)
	중간이다	89 (30.3)	73 (24.8)
	적게한다	168 (57.1)	168 (57.1)
이성친구	자주한다	48 (16.3)	33 (11.2)
	중간이다	67 (22.8)	51 (17.3)
	적게한다	179 (60.9)	210 (17.4)
목 표 나 회 망	자주한다	126 (42.9)	143 (48.6)
	중간이다	93 (31.6)	85 (28.9)
	적게한다	75 (25.5)	66 (22.4)
취 미 나 특 기	자주한다	73 (24.8)	95 (32.3)
	중간이다	98 (33.3)	70 (23.8)
	적게한다	123 (41.8)	129 (43.9)
방 과 후 활 동	자주한다	75 (25.5)	60 (20.4)
	중간이다	107 (36.4)	72 (24.5)
	적게한다	112 (38.1)	162 (55.1)

대화유형에 있어서 부모주도형의 아버지가 어머니쪽보다 많았음을 상기한다면 지나치게 학업에의 성취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즉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할 지라도 이야기를 함께 나누거나 들어주는 부모와 이야기를 주도하는 부모는 아동에게 매우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 외 다른 대화 주제에서는 '자주 대화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볼 때 단적으로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쪽의 대화빈도가 낮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실태를 보면 대체로 부모와의 대화수준은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임을 알 수 있고 특히 여러 항목에서 어머니보다 아버지와의 대화가 훨씬 부진하고 개선할 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2) 아동과 부모간의 결속도

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와의 결속도 평균점수는 어머니와의 결속도는 3.60, 아버지와와의 결속도는 3.43으로 중간점수인 3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상호간의 유대가 아주 높지는 않은 편이며, 그 중에서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유대수준이 좀 더 높아 아버지보다는 돈독한 것으로 보인다(표 2).

〈표 2〉 부모와의 결속도 평균

구 분	아버지와의 결속도	어머니와의 결속도
평 균 점 수	3.43	3.60

3) 커뮤니케이션 관련변인에 따른 부모와의 결속도 차이

커뮤니케이션 관련변인에 따른 부모와의 결속도 점수의 차이를 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주대화상대자에 따른 어머니와의 결속도는 어머니와 주로 대화한다고 답한 아동의 결속도 점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모두 비슷하다는 경우, 아버지, 그리고 친구 순이었다. 아버지와의 결속도는 아버지와 주로 대화한다고 답한 아동의 결속도 점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모두 비슷하다는 경우, 어머니, 그리고 친구 순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아동은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와 유대가 돈독함을 알 수 있다.

하루평균 대화시간에 따른 부모와의 결속도 점수는 어머니와의 결속도 및 아버지와와의 결속도 점수 모두가 1시간 이상 대화하는 경우에 가장 높고 그 다음이 30분에서 1시간 사이였으며, 가장 낮은 집단이 30분 미만 대화하는 경우로 나타나 대화하는

〈표 6〉 커뮤니케이션 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와의 결속도 차이

변 인	집 단	母와의 결속도 평 균	F 값	D T	父와의 결속도 평 균	F 값	D T
주 대화 상대자	어머니	3.88	8.10***	A	3.88	8.10***	A
	아버지	3.54		AB	3.54		AB
	친 구	3.39		B	3.39		B
	모두 비슷	3.76		AB	3.76		AB
하루평균 대화시간	30분 미만	3.32	17.50***	C	3.32	17.50***	C
	30분 ~ 1시간	3.70		B	3.70		B
	1시간 이상	3.98		A	3.98		A
대 화 인 지 도	충분히 하고 있다	3.92	12.52***	A	3.92	12.52***	A
	보통이다	3.50		B	3.50		B
	충분히 하지 못함	3.28		B	3.28		B
대화시간 부족이유	함께있는 시간 부족	3.80	3.88*	A	3.80	3.88*	A
	서로 대화 통하지 않음	3.05		A	3.05		A
	대화가 하기 싫음	2.88		A	2.88		A
대화유형	양방개항형	3.83	21.86***	A	3.83	21.86***	A
	부모주도형	3.22		B	3.22		B
	자녀주도형	3.51		B	3.51		B
	양방차단형	2.78		C	2.78		C
대 화 만 족 도	낮은집단	3.18	17.78***	B	3.18	17.78***	B
	중간집단	3.23		B	3.23		B
	높은집단	3.87		A	3.87		A

시간이 많을수록 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대화시간과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준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김진희, 1988; 민하영, 1991; 박은주·김경신, 1995; 차은정, 1996).

대화하는 시간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도 부모와의 결속도 점수는 어머니와의 결속도 및 아버지와의 결속도 점수 모두가 어머니와 아버지쪽 모두 대화 시간에 만족한다고 생각할수록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두 집단보다 높은 결속도 점수를 보여

주고 있다. 대화부족의 원인에 있어서는 '함께 할 시간이 적어서'라고 대답한 경우의 부모자녀간의 결속도가 높게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결국 대화하는 시간의 양도 중요하지만 대화할 시간이 충분치 못하다고 할 지라도 아동이 인정하고 있고 부모와의 대화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에 대한 결속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실제 조사결과에서도 서로 대화를 하기 싫어하거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아동보다 대화를 원하지만 함께 대화할 시간이 적다고 답한 아동이 대부분이었음을 상기하면 매우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다.

대화의 유형에 따라서는 자녀와 부모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양방개방형의 경우가 어머니와 아버지쪽 모두 결속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자녀가 주로 말하고 부모가 들어주는 자녀주도형인 경우, 그리고 부모가 주로 이야기하고 자녀는 듣는 부모주도형인 경우,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잘 주고받지 않는 양방차단형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역시 상호 개방된 의사소통의 긍정적 효과를 밝혀낸 선행연구들(김진희, 1988; 박은주·김경신, 1995; 차은정, 1996)에서와 같이 부모자녀간에 개방된 의사소통을 할수록 부모와 감정적으로 깊은 유대를 맺게 되며 일방적이라 할지라도 대화를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보다 좋고 그 중에서도 부모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 쪽보다는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유대 형성에 적절함을 알 수 있다.

대화 만족도에 따라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쪽 모두 부모와의 대화에 만족하게 여기는 아동이 부모와의 대화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 다른 집단의 아동들보다 높은 결속도 점수를 보여주고 있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만족하고 있을수록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좋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진희, 1988; 민하영, 1991; 박은주·김경신, 1995).

4.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자녀의 부모자녀간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주시의 5, 6학년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실태 및 부모와의 결속도를 알아보았으며, 커뮤니케이션 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 결속도의 차이를 밝혀 아동과 그 부모간의 결속을 더욱 향상시키고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을 돕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부모와의 결속도를 조사한 결과 아동들이 지각하는 부모 자녀간의 유대수준은 아주 높지는 않은 편이나,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유대가 좀 더 돈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 (1) 아동은 주 대화상대자로 친구를 가장 많이 들고 있으며 그 다음이 어머니였으며 아버지는 맨 하위이다.
- (2) 전반적으로 볼 때, 아동들은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와의 대화가 적었다.
- (3) 실제로 부모와 대화한 시간에 대해서는 아동들은 보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어머니쪽보다는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아동이 많다. 대화 시간이 부족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있는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대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 대부분의 아동이 부모와의 대화를 열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4)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있어서 아동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쪽 모두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호개방적인 대화유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그 다음 순위는 부모 주도형으로서 아버지쪽이 어머니쪽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로 대화가 차단되는 경우 역시 아버지쪽의 빈도가 더 높다.
- (5) 부모와의 대화에 대한 만족도를 본 결과 어머니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아동이 매우 많은 데 비해 아버지에 대해서는 역으로 아동의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 (6) 부모와의 대화를 주제별로 살펴본 결과는 부모 모두 아동의 목표나 희망에 관해서가 가장 많고 아버지의 경우 학교성적과 공부에 대한 것이 어머니쪽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그 외 대부분의 대화 주제에서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쪽의 대화빈도가 낮았다.

이상과 같이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실태를 보면 대체로 부모와의 대화수준은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임을 알 수 있고 특히 여러 항목에서 어머니보다 아버지와의 대화가 훨씬 부진하고 개선할 점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커뮤니케이션 관련변인에 따른 부모와의 결속도 점수의 차이를 본 결과,

- (1) 하루평균 대화시간에 따라서는 대화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대화하는 시간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쪽 모두 대화 시간에 만족한다고 생각할수록 부모와 좋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대화 할 시간이 충분치 못하다고 할지라도 아동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결속 지각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 (3) 개방된 의사소통을 할수록 부모와 감정적으로 깊은 유대를 맺게 되며 일방적이라 할지라도 대화를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보다 좋고 그 중에서도 부모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 쪽보다는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어머니와 자녀의 유대 형성에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 (4) 대화 만족도에 따라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아동일수록 부모와의 결속이 좋음을 알 수 있었다.

2)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 (1) 제주지역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결속 정도 및 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바람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다.
- (2)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 ① 부모를 주 대화 상대자로 여길수록,
 - ② 부모와의 하루평균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 ③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 ④ 대화가 차단되거나 일방적이기보다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개방적인 유형일수록, 또한 부모가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
 - ⑤ 부모와의 대화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간의 결속을 향상시키는 데 바람직하다.

3) 제 언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부모자녀간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바람직한 방법을 통하여 상호 대화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특히 부모 쪽의 노력이 요구된다. 자녀를 깊이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자주 대화시간을 가지며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등 상호 개방된 대화분위기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족원의 결속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둘째,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의 기술에 관한 교육 및 의사소통의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실시되어야 하겠다. 예로서 부모 모두 또는 한 가족을 단위로 하거나 부-자녀, 모-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가족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즉, 가족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학교 및 대중매체 등 사회전체적으로 건전한 가족분위기 유도 및 실질적인 정책수립을 통한 가족의 복지책이 완비되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한국아동학회지, 10(1), 64-78
- 김경희(1996).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어머니의 권위, 통제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4(3), 187-198.
- 김리은·정옥분(1996).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부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4(5), 265-281.
- 김순옥(1989). 부모자녀간의 응집성 척도개발을 위한 연구, 사회과학, 28(1), 115-131.
- 김진희(1988). 부모-청소년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박은주·김경신(1995). 어머니와 청소년자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유형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대한가정학회지, 33(4), 27-38.
- 백양희·최외선(1996). 농촌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34(1), 33-47
- 장호선(1987).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청소년기 자녀를 중심으로-, 성심여대 석사학위논문.
- 전귀연·최보가(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 유형이 부모-청소년기 자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3), 157-173.
- 전귀연·최보가(1995a). 가족응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1), 83-97.
- 전귀연·최보가(1995b). 가족적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2), 73-87.
- 정원식 외(1977).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 차은정(1992). 청소년스트레스와 가족체계 및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울산대 석사학위논문.
- 차재호(1983). 시안의 심리적 접근, 한국인의 윤리관, 정신문화연구원.
- 최규련(1996). 가족학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문제와 대책, 대한가정학회지, 34(1), 147-160.

- 최연실(1996). 가족적응력. 응집성 평가척도(FACES)에 관한 연구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31-145.
- Olson, D.H., McCubbin, H.I., Barns, H.L., Larsen, A.S., Muxen, M. J., & Wilson, M.A. (1983).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Olson, D.H., Sprenkle, D.H., & Russel, C.S.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1: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3-28.
- Thomas, E. (1977). *Marital Communication and Decision Making*, N.Y. : The Free Press.